

비정질 Fe78Si9B13 합금의 등온열처리에 따른 미세구조와 보자력 변화

**Microstructure and coercivity changes of amorphous Fe78Si9B13 alloy
during isothermal annealing process**

류 진 형*, 김 창 경, 김 영 호 (한양대학교)

1. 서론

자성재료를 이용한 센서는 전자기장의 측정, 변위, 하중의 측정, 그리고 의료기기내의 정밀 센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어 왔다. 비정질 합금을 이용한 여러 자성센서 중에서 유망한 것 중의 하나가 magnetoelastic 센서(M-E 센서)인데, 이러한 M-E 센서용 비정질 합금의 특성은 합금의 조성과 구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이런 미세구조의 변화가 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고찰하는 것은 M-E 센서의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비정질 Fe78Si9B13 합금을 등온열처리하여 결정화정도, 평형·비평형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자기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실험방법

RSP(rapid solidification process)로 만든 너비 1 cm, 두께 28.5 μm 인 리본(ribbon) 형태의 Fe78Si9B13(at.%) 비정질 합금을 450 °C에서 600 °C까지 50 °C 간격으로 시간을 변화시켜 질소분위기에서 등온열처리 한 후 공냉하였다. 열처리된 시편의 보자력은 VSM으로 측정하였으며 열처리 조건에 따른 결정화정도와 결정화에 따라 형성되는 평형·비평형 석출상의 존재유무를 분석하기 위해 XRD측정을 실시하였다. 미세구조의 직접적인 관찰을 위하여 TEM을 이용하였으며 SEM으로도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3. 결과 요약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자력은 큰 증가를 보이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보자력은 증가하다가 곧 포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의 보자력 증가는 비정질 모상에서 주상정 형태의 α -Fe의 부피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그후 포화되거나 감소하는 것은 α -Fe의 결정립 성장에 기인하였다. 600 °C에서 30분, 1시간동안 등온열처리한 시편이 최대보자력을 나타냈으며, 이 시편은 α -Fe 결정립의 입계에 층상의 Fe_3B 화합물이 생성된 형태의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과학재단 목적기초 특정연구과제 지원(97-0300-1101-5)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